

모바일 진료카드로 접수·수납·AI 케어까지 OK

SKT와 손잡고 국내 병원 첫 도입
스마트 위치 연계 맞춤 진료 계획
필립스와 의료 신기술 개발 추진
현대차 협력해 이동형 병원 개발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스마트 진료시스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식별자 서비스 '이디컬' 앱에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를 국내 병원 최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고대병원'을 출시하는 등 환자 중심 스마트 진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앱으로 본인확인부터 처방전 발행까지

이번에 국내 병원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본인 확인부터 접수와 수납, 처방전 발행 등 다양한 병원 업무를 앱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병원 방문 전부터 퇴원 이후까지 진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스마트 진료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원 방문 전 PHR(개인건강기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문진 등 환자 정보를 추적해 내원 진료 시에 활용한다. 퇴원 후에도 AI 기반 골뮌을 활용해 환자 케어, 식이요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 등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정밀의료를 구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려대의료원 메디사이언스 파크 전경. '이동형 병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 오른쪽)과 지영호 현대차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고려대의료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스마트 앱의 서비스 구성도(위부터 시계방향). 고려대의료원은 다양한 기업과 첨단 기술 기반의 차세대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다.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 오른쪽)과 지영호 현대차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고려대의료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스마트 앱의 서비스 구성도(위부터 시계방향). 고려대의료원은 다양한 기업과 첨단 기술 기반의 차세대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올 초 출시한 스마트 앱 '고대병원' 역시 병원의 각종 절차를 스마트 기기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 친화적 UX/UI(사용자 경험 중심) 디자인을 적용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배치했다. 앱 접속자에게 상황(예약환자, 당일 외래진료 환자, 입원환자)에 맞는 맞춤형 메인화면을 제공한다. 고려대의료

원 안암병원부터 시행했으며 구로병원과 안산병원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앞으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철저한 보안과 사용 편의성 증대를 강화해 병원 업무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맞춤형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

은 각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여 의료현장에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인텔리전트 병원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에 초점을 맞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T, 필립스, 현대차 등과 협업 활발

고려대의료원은 SK텔레콤과의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첨단 테크놀로지 기반 차세대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선두기업인 필립스와 혁신적인 최첨단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에 의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고려대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환자 맞춤형 의료신기술 개발을 공동진행한다.

지난해 말에는 '스마트 의료기기-이동형 병원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았다. 양측은 2023년 4월까지 노령,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연구하고 시범운영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소형 SUV와 버스를 지원하고, 고려대의료원은 이 차량을 이용해 취약계층과 거동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방문 진료한다. 차량에는 각종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이동형 병원은 고려대의료원이 자랑하는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하는 스마트 이동형 병원에 P-HIS를 적용하면 질병진단부터 치료까지 통합지원하는 '모바일 병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남성 갱년기, 호르몬 보충만으로 치료? 다양한 운동 병행해야 극복!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근육질의 멋진 40대 중반 연예인이 자신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육 양이 별로 많지 않은 일반 중년 남성들은 모두 남성호르몬 수치가 저하되어 있을까.

남성갱년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후군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어느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고 성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전형적인 남성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남성갱년기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통해 손쉽게 치료 가능한데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금연, 절주, 식이조절 및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다.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경우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중단하더라도 효과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크게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양과 힘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한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조정, 수영 등과 같이 체중을 조절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저항성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은 분명 남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항성 운동만으로 남성호르몬 수치를 효과적으로 상승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상승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실제 필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심폐체력과 지방량 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깊은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이 갱년기를 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운동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 체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증상이 심한 남성갱년기 환자의 경우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운동요법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증상 개선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 남성 갱년기는 약물 치료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운동요법을 비롯한 생활습관 개선을 반드시 병행해야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박민구 교수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9일 (목) 음력: 5월 1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산기술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학업, 연구,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사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달하는 날이므로 연예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망신날이다. 망신이 좋게 작용하면 수익의 증대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켜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출장 등 멀리저리 돌아다니는 업무가 좋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지살 일에는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주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건강을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코뼈골절, 골든타임 내 수술해야

코는 앞으로 길게 돌출된 구조 특성 상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 넘어질 때 코뼈골절 등의 부상을 자주 입는다. 그런데 코뼈골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타박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코뼈골절 치료시기를 놓치면 코의 구조가 변형된 상태로 고착될 수 있다. 코의 내부 구조가 변형되어 코막힘 등의 증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코뼈골절로 비종격골이 휘어져 비염, 코막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신속한 치료를 받으면 코뼈 교합 정확도가 높고 수술 방법도 간단해진다. 수술 이후 통증 및 출혈 등의 증상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상기해야 할 점은 코뼈골절 치료 전 정밀 검사 체계를 확보한 의료기관인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3D CT 등으로 골절 상태를 세밀하게 진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코뼈정복술로 부러진 코뼈를 교합, 재건하는 것은 물론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비종격 교정 혹은 코성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이외에 부종주사로 붓기를 최소화하는지, 당일 퇴원 가능한지 여부 역시 확인하는 게 좋다. 강남 연세코앤비인후과 송정환 원장



H+양지병원, 마취 적정성평가 2회 연속 1등급

H+양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 의료의 질 개선과 마취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97.5점)를 기록했다. 병원 측은 "민간종합병원도 마취 분야 우수 의료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비, 환자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갖추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사나, 무드 서포트 라인으로 슬리포노믹스 공략

유사나코리아는 내면 건강제품 '무드 서포트' 라인을 출시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슬리포노믹스(수면경제)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무드 서포트 라인은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와 '칼 리스폰스 에센셜 오일 밤' 2종이다.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함께 부성분으로 칼륨, 레몬, 생강, 미네랄 등을 함유해 신경과 근육의 편안한 회복과 기능 유지를 돕는다. 칼 리스폰스 에센셜 오일 밤은 휴식과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라벤더 오일을 비롯해 일랑일랑, 파출리 오일 등 5가지 천연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늘의 날씨				9일(목)			
서울	70/60	인천	60/60	춘천	60/70		
	18 24		17 23		15 23		
강릉	30/30	대전	30/60	전주	20/20		
	14 22		16 26		17 27		
광주	10/20	대구	20/20	부산	0/0		
	16 27		14 27		16 23		
창원	0/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5 24		18 25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4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